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키케로의 연설로 보는 수사학의 진수

: 섹스투스 로스키우스 변론을 중심으로

김 종 영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키케로의 연설로 보는 수사학의 진수



: 섹스투스 로스키우스 변론¹⁾을 중심으로

키케로는 인문학의 보고다. 인문학(Humanitas)이라는 말도 그가 만들었다.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사람다움, 사람으로서의 도리,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아니던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키케로는 주목했다. 시대의 격변기를 살며 공화정을 지키려고 온몸을 불살랐고, 귀족 신분이 아니라 중인계급에서 최고위 관직을 거머쥐었으며, 콘술(Consul, 집정관)을 거쳐 원로원, 급기야 나라를 구해 로마의 국부(國父)가 된 사나이, 키케로.

르네상스시대 인문주의자들은 키케로에 열광했다. 그를 복원하며 신에 도전하였는지도 모른다. 키케로주의라는 조어도 만들어졌다. 대관절 그는 누구인가? 키케로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역사가 몸젠이나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노획한 정치가 정도로 그를 평한다. 그러나 키케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받을 인물이 아니다. 살아 있을 당시에 그와 존재감을 겨룰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었다. 정적 카이사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가? 어찌 보면 시대를 잘못 읽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럴 것을 예감하였기에 저술에 몰두할 수도 있었다. 비록 정복은 하였다 하더라도 그리스의 높은 문화수준에 자극받은 로마인들, 마냥 부러워할 수만은 없었기에 로마인들에게도 제대로 읽을 만한 책을 저술해야겠다고 야심을 불태웠던 키케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저술만 놓고 보아도 그는 가히 인류의 스승으로 대우받아 마땅하다. 그의 저서 중 설득과 중재에 관한 책 몇 권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브루투스(Brutus)』에서는 로마의 건국시기부터 공화정 말기까지의 그리스·로마 최고의 작가와 연설가들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말하기와 글쓰기의 주요 원리들을 들려준다. 예를 들어, 누구는 이 분야에선 탁월하지만 저 분야에선 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키케로는 그 방법을 친구 아티쿠스와 아끼는 후배 브루투스와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며 우리에게 들려준다. 문헌학자 푸어만이 최고의 수사학 교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연설가에 대하여(De Oratore)』에선

1) 필자 주: 본문에 수록된 국문 번역 연설문들은 키케로, 2015, 『설득의 정치』, 김남우 외 공역(민음사), 키케로, 2006,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안재원 편역(길)에서 발췌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이상적인 연설가의 덕목을 설파한다. 그 이전의 수사학 교재들이 주로 말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책은 사람이 전면에 등장한다. 기술에서 사람으로, 그의 인간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정통 수사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칸트의 스승 바움가르텐으로 하여금 미학의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가 알베르티에게도 조화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연설가(Orator)』, 열여덟의 나이로 말감(Thesis)을 발견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발견술에 관하여(De Inventione)』, 논거를 발견해서 분류하고 확장해나가는 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토피카(Topica)』, 아들과 문답을 나누며 말하는 사람의 힘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수사학(Partitiones Oratoriae)』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수사학 관련 책 외에 법, 철학, 역사, 윤리, 우정, 노년, 선 등 각종 주제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그의 저서들은 인문주의를 열게 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다. 이론서를 비롯하여 특정 주제를 정리한 책들은 차치하고라도, 키케로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보물은 그가 행한 수많은 연설이다. 그는 연설을 통해 사람 사는 사회의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렸으며,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알려주었다. 인간의 종적 특성에서부터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무릇 사람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변하였던 연설. 그 연설 속에는 그야말로 어떠한 텍스트에서도 볼 수 없는 인간다움, 사람냄새, 공동체의 정신, 덕, 용기, 절제 등이 들어 있다. 그래서 그의 연설은 인문학의 보고가 된다. 아니, 인문학의 교과서다. 그는 연설로 세상을 구했다. 이 글에서는 그의 많은 연설 가운데 하나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스물여섯, 약관의 나이에 당대 최고 실력자의 변호를 받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를 상대해 무고한 청년을 변호하여 승리로 이끈 변론에 주목하고, 그 연설 속에 나타난 설득과 중재의 정신을 수사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기원전 80년 로마, 친부살해(Parricidium)죄로 한 청년이 고발당했다. 청년의 이름은 섹스투스 로스키우스(Sextus Roscius)다. 고발자는 가이우스 에루키우스(Gaius Erucius). 고발자의 배후에는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크뤼소고누스(L. Cornelius Chrysogonus)가 있다. 그는 술라(Cornelius Sulla)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다. 술라가 누구인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다. 아무도 고발당한 사람을 변호하려 들지 않는

다. 괜히 변호했다가 권력 실세에 미운털이 박히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키케로가 변호하겠다고 나선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키케로라고? 대체 누구지? 허, 그 친구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그렇고 기개 하나는 살 만하네. 대체 어떻게 변호하겠다고 하는 거지?” 드디어 키케로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무대가 펼쳐진다.

우선 사건의 배경부터 알아보자. 변론 곳곳에서 정권과 결부된 사람들과 그 행위, 사건의 정황이 밝혀진다. 정권 실세의 소위 갑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른바 정치적 사건이다. 사건의 실상은 이렇다. 로마에서 80여 km 떨어진 아메리아(Ameria) 지방에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살고 있다. 고발당한 청년 이름과 똑같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기 때문이다. 로스키우스는 농장을 열세 개나 가지고 있는 부호다. 그는 로마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술라 편을 들었고, 당대의 여러 명문가와 친분도 쌓고 있었던 지역 유지다. 그런 그가 로마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살해되었다. 누가, 왜 그를 죽였을까? 고발자들은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서라는 것이다. 키케로는 주도면밀하게 정황을 분석한 후 범인은 바로 죽은 자의 친척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공모해 그를 죽이고 농장 열세 개를 재산 몰수 명단에 올리고 혈값에 사들였으며, 아들이 살아 있는 한 자신들이 획득한 재산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들을 부친 살해혐의로 고발하였다는 것이다. 공모가 성공한다면야 고발자들에게 금상첨화다. 눈엣가시를 제거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차지할 수 있었을테니까. 피고인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운은 거기까지였다. 하필 법정에서 키케로를 만날 줄이야. 이제 그의 변론을 직접 살펴보자. 당시 부친살해죄는 극형에 처해진다. 산 채로 자루에 담겨 매질을 당하고 그 속에 뱀, 원숭이, 개, 닭 등을 넣어 꽁꽁 묶어 언덕 위에서 티베리 강으로 던져진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의 시신을 물고기도 먹지 못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야말로 자연과의 철저한 격리다. 부모에 대한 패륜의 처벌은 양(洋)의 동서와 시(時)의 고금을 막론하고 같았던 모양이다. 아니, 당시 로마 사회는 그 죄를 더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었다.

총 15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론문은 그 길이가 꽤 길고 구성 또한 매우 복잡하다. 키케로는 때론 고발자를 불러내고 때론 피고인을, 때론 산 자를, 죽은 자를, 로마시

민을, 배심원을, 다양한 청중에게 불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 하면 모두가 공멸하는 것이라고. 인간은 다른 이들은 물론 자연 전체에 의무를 진 존재이기에 그들과 함께 해야 함을 설파하는 키케로의 인문정신이 연설 곳곳에서 울골이 드러난다. 정의가 무엇이고 공동체는 어떠해야하며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드러낸다. 말이 곧 그 사람이 아니던가? 키케로의 말이 곧 키케로의 정신이자 전부였다.

키케로는 변론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왜 이 송사를 맡았는지 의아해하는 배심원들에게 이유를 설명한다. 이유는 딱 세 가지다. 첫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변론을 맡으면 소송이 실제보다 과도해 보일 수 있다. 둘째,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발언하지 못한다. 셋째,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젊고 열정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호의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변론을 맡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바로 자기라고 하면서 의지할 데 없는 한 무고한 젊은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변호를 맡게 되었노라고 강조한다. 변론을 맡은 이유를 대고 나서 곧바로 고발자들을 속물 프레임으로 가둔다.

“600만 세스테르티우스에 달하는 피고인의 부친의 재산을, 존경하는 용감하고 저명한 루키우스 솔라로부터, 현재 이 나라의 막강한 실세, 젊은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크뤼소 고누스가 2000 세스테르티우스에 사들였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크뤼소고누스는 타인의 엄청난 재산을 불법으로 강탈하고 나서,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살아있으면 재산착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마음 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한 셈입니다. 로스키우스가 무사히 생존할 경우 크뤼소고누스는 무고한 피고인의 엄청난 재산을 차지할 수 없지만, 로스키우스가 유죄판결을 받아 축출되기만 하면 그는 범죄로 획득한 것을 사치로 낭비하고 탕진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키케로는 경매결과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정단계에서 상대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사치, 낭비, 탕진 등의 어휘를 상대에게 덧씌워 청중이 상대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린다. 그런 파렴치범을 단죄해야 하는 것이 청중의 의무가 된다고, 상대를 이용한 호감 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키케로는 상대의 행위를 파렴치로 규정하고 그 죄를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중에게 흉악한 자로부터 무고한 자를 구해달라고 간곡하게 청하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의무를 수행하겠노라고 결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고 끔찍한 범죄에 관해 제가 적절히 설명할 수도, 가혹하게 힐난할 수도, 기탄없이 성토했을 수도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능은 적절한 설명을, 나이는 가혹한 힐난을, 시대는 기탄없는 성토를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의 수줍은 성품, 여러분의 위엄, 적들의 힘,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처한 위험은 저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심원 여러분, 귀 기울여 호의적으로 제 말을 들어달라 간청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의와 지혜에 힘입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짐을 약간이나마 덜어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는 한 노력과 열의를 다해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제 간청과 호소가 여러분에게 버림받더라도, 저는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맡은 소송을 완수하겠습니다.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신의로써 일단 맡은 소송을 배신으로 그르치거나 비겁하게 도망치느니, 차라리 의무의 짐에 깔려 죽고자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하고 청중에게 도움을 청하고 진인사대천명을 외치는 변호인, 게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결기를 외치는 변호인. 우리는 여기서 키케로의 인간관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자연에, 인간에, 주변에 덕을 입고 태어났기에,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존재라고 키케로는 강조한다. 보통의 인간이 그러할진대, 무고의 누명을 쓰고 버려진 연약한 피고를 구해야 하는 변호인은 일러 무엇하랴?

서론에서 파렴치하고 끔찍한 사안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끌고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상대의 잔인함을 이용해 청중의 호감을 산 후, 사안 이해를 위한 단계로 넘어간다. 사실 관계를 따지며 기술하는 단계에선 명료하게 사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안 설명에 앞서 피고인의 부친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며 살해를 당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혈통과 신분 그리고 행적의 토포스를 사용하여 명쾌하게 알리고 있다. 문제는 그의 부친과 반목관계에 있는 친척들로, 그들은 바로 고발자와 한통속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부친은 아메리아 출신의 두 명의 로스키우스와 오랜 반목관계에 있었는데, 둘 중 한 명은 고발자석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한 명이 우리

피고인의 농장 세 개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평소 정적을 두려워했던 만큼 적의를 경계했다면 그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그의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별명이 카피토이고, 재판에 참석한 다른 한명은 마그누스라 합니다. (중략) 피고인은 아메리아에 있었던 반면, 마그누스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농장에 상주하여 선친의 뜻에 따라 가산을 돌보며 농장생활에 헌신했고, 마그누스는 로마에 머물렀고, 피고의 선친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팔라키나 목욕탕 근처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이로부터 범죄혐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모두에게 분명해졌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건의 개요가 어떻고, 인물과 장소 그리고 시간의 토포스를 활용하여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명료하게 알리고 있다.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간명하게 설명하고나서 키케로는 살해소식을 알린 사람과 그와 연관된 정황들을 개연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 왜 소식이 그토록 빨리 고향에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소식이 어째서 술라진영에 있던 크뤼소고노스에게 전해졌는지, 고발자들이 어떻게 공모하여 순진한 시골청년을 제거하려고 하였는지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 저명하고 인기 높은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허망하게 살해당한 후, 로마에 알려지지 않은 순진한 시골청년은 손쉬운 제거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그누스와 카피토는 이를 도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말하건대, 공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산몰수자 명부가 더는 발표되지 않았을 때, 이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다 생각할 때, 귀족의 열렬한 지지자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재산몰수자 명단에 올려졌습니다. 매입자는 크뤼소고노스였습니다. 가장 좋은 농장 세 곳은 카피토의 소유로 넘어가서, 지금도 그의 소유입니다. 마그누스는 스스로 말하듯이, 나머지 재산 모두를 크뤼소고노스의 이름으로 차지했습니다.”

막강한 크뤼소고노스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마그누스는 피고인의 농장을 강탈했고, 피고인은 부친의 장례식을 제대로 마치기도 전에 알몸으로 집에서 쫓겨 나는 처량한 신세가 되자, 동네 사람들은 이를 부당하게 여겨 즉시 10명의 사절단을 대표로 선출해 죽은 자의 명예와 무고한 아들의 재산을 지켜달라고 술라에게 간청하러 갔다. 그러나 크뤼소고노스가 중간에 그들을 만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후 그들을 돌

려보냈다. 모든 사실이 술라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크뤼소고누스에겐 상상만 해도 끔찍했을 것이다.

키케로의 변론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한편의 비극을 감상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 극적인 구성은 물론 선명한 표현은 마치 등장인물이 무대에서 생생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선과 악의 극명한 대비, 순진함과 파렴치함의 대비, 고발자의 파렴치와 피고인의 순진무구함이 선명하게 대비되며 비극의 플롯으로 작동한다. 여기에 정의의 실현하려고 도와주는 원군이 적의 간계한 술수에 넘어가 허망하게 돌아가고... 그나마 귀인을 만나 목숨을 간신히 부지한 피고인이자 의뢰인인 시골청년의 앞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요 천 길 낭떠러지에 서있는 몸이다.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구상한 것에 더해 키케로는 고발자들의 용의주도함과 뻔뻔스러움을 밝혀낸다. 최초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 플랜 B를 가동시켜서라도 끝까지 피고인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야만성을 보고 청중은 분개할 것이다. 키케로는 이 모든 것을 간파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차근차근 응징해나간다.

“섹스투스 로스키우스의 생명이 세심한 보살핌으로 보호되어 살해의 기회가 없음을 깨달은 크뤼소고누스와 카피토는 무모한 악행으로 가득 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를 존속살해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위해 심지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에 대해서조차 뭐든 고발할 수 있는 노련한 고발자를 구했으며, 마지막으로 로스키우스에게 실제로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시대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존속살해 재판을 처음으로 다시 받는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크뤼소고누스의 영향력 때문에 피고인을 도울 변호인은 없을 것이다. 누구도 재산의 매각과 그 공모를 말하지 못 할 것이다. 존속살해의 죄명과 그 흉악성 때문에 누구도 변호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그는 쉽게 제거될 것이다.” 그들은 이런 계획, 아니 오히려 광기에 이 끌려, 자신들이 직접 죽이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을 여러분이 죽이라고 여러분에게 건넸던 것입니다.”

누군가 법정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변론을 펼치는 상대 변호인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상대의 플랜 B까지 간파하고 그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준비하는 변호인. 상대 진영의 애초의 계획은 아들까지 죽이고 자신들이 죽은 자의 재산을 몽땅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 계획이 어려워지자 플랜 B를 작동시킨다. 우선 아들에게 친부살해 혐의를 씌우

고 둘째, 이를 위해 노련한 고발자를 세운다. 셋째, 피고의 혐의없음에 대비해 시대상황을 이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대상황이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친부살해 혐의로 처음 재판받는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당시 고발자들 배후의 영향력과 범죄의 흉악성 때문에 누구도 피고인의 변호를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키케로는 상대의 이런 전략을 간파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며 고발자 에루키우스가 제시하는 혐의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아가 카피토와 마그누스를 역 고발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키케로는 반박에 앞서 최근에 벌어진 스카이볼라 상해사건을 언급하고 그 사건을 일으킨 가이우스 뫼브리야를 미친 사람으로 규정한 후, 이를 자신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 사건과 비교한다. 스카이볼라는 당시 로마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그런 인물을 살해하려고 한 뫼브리야가 로마인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지사다. 은연중에 키케로는 스카이볼라와 로스키우스가 훌륭한데 있어서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뫼브리야와 크뤼소고누스를 한 데 엮어 청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키케로는 사실 기술 마지막 부분에 여담을 슬쩍 집어넣어 청중이 본 사건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셈이다. 그런 연후에 키케로는 본 사건의 쟁점을 구분하고, 쟁점에서 드러난 사항을 청중과 함께 밝혀나가자고 호소와 함께 결기를 다짐하고 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섉스투스 로스키우스가 직면한 장애물은 세 가지로, 적들의 고발, 적들의 무모함, 적들의 권력입니다. 고발자 에루키우스는 거짓 고발을 담당했고, 마그누스와 카피토는 무모함을 맡았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크뤼소고누스는 권력이라는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세 가지 점에 관해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점을 같은 방식으로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점은 제가 말아야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점은 로마 인민이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발을 물리쳐야 하며, 여러분은 무모함에 저항하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저들의 권력을 가능한 한 초기에 진압하고 없애야 합니다.”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각각의 쟁점에 분리 대응해야 하며 청중과 변호인의 공조로 적을 퇴치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변하는 키케로의 말에 누가 공감하지 않겠는가? 쟁점을 확실히 하고나서 키케로는 본격적인 반박을 시도한다. 우선 고발자 에루키우스가 제시하는 혐의들을 조목조목 따져나간다. 조금 전에 여담에서 과

거의 사건들과 해당자들을 불러냈듯이 반박하는 과정에서도 키케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발자의 목소리는 물론 역사 속의 존경받는 인물, 희극과 비극 속 등장인물도 불러내고 여러 시인들의 목소리도 낸다. 로마와 그리스의 법률도 불러내고 심지어 신들을 불러내어 반박의 개연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키케로의 반박전략은 그가 수사학 이론서에서 밝혔듯이 상대의 주장에 들어 있는 논거 하나하나를 반박하며 전체 주장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고발자가 말합니다.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부친을 살해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 고발자가 말합니다. 그의 부친이 그를 싫어했다. 그의 부친이 그를 싫어했습니까? … 고발자가 말합니다. …” 고발자가 말한 내용을 재구성하고 그 말이 모두 근거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답법을 구사하면서 상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대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무엇인가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어 확실하게 입증하라고 다그치기까지 한다.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적어도 뭔가를 그럴듯하게 꾸며 보십시오. 당신이 한 일이 피고인의 삶과 그토록 훌륭한 배심원들의 위엄을 조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친은 아들에게서 상속권 박탈을 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른다.** 상속권을 박탈했습니까? **아니다.** 누군가 말린 이가 있습니까? **생각을 품기만 했다.** 생각을 품기만 했습니까?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입증할 수도 없고 입증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이득을 보고 욕망을 충족하고자 법정과 법과 여러분의 위엄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쯤해도 상대는 거의 사경을 헤맬 지경인데 상대의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더 용의주도하게 준비해 법정에 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변호인이 고발자들보다 한 수 위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면서 자신의 성실성을 배심원들에게 알리고 있는 셈이다. 고발자를 반박하는 부분은 전체 연설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키케로는 반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를 추궁해나간다. 고발자에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에겐 반박의 근거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따지는가 하면, 배심원들에겐 고발자가 피고인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라고 한다. 입증하지 못하는 상대를 향하여 그가 왜 입증하지 못하는지 고발자의 목소리로 진술하기도 한다.

“그는 상속권을 박탈당할까 두려웠다. 저는 당신의 주장을 들었지만 두려움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친이 상속권을 박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입증하십시오.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가 누구와 상의했는지, 누구에게 알렸는지, 당신들이 의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증된 게 없습니다. 에루키우스여, 이런 식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받았는지는 알아도, 뭘 말할지는 모른다.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무도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아무도 감히 재산의 매입과 공모를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크뤼소고누스의 말뿐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당신은 고발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이에 응대하리라 생각했다면, 하늘에 맹세코 당신은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고발했어야 함을 다시 상기시키며 키케로는 범죄동기를 제시하지 못하니 이번에는 살해 방식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러니까 섹스투스 로스키우스가 부친을 살해한 이유가 아니라 그 방식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말할 순서이지만 고발자에게 대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이런 변호인을 바라보는 배심원들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향하겠는가? 키케로는 살해 동기와 살해 방식을 물으며 고발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역 고발을 시도한다. 역 고발은 상대가 찾아내지 못한 범행 동기를 상대진영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내겠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이제 표적이 이동하고 있다. 고발자 에루키우스에서 마그누스로 표적을 옮기면서 ‘범죄결과가 누구에게 이득인가?’를 따져 물은 다음, ‘누가 살해했느냐?’라는 질문을 이어가며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더해나간다.

“배심원 여러분, 둘 중 누가 섹스투스 로스키우스를 죽였는지 고민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살해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해진 사람입니까? 살해 전에 가난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해 후에 몹시 가난해진 사람입니까? 탐욕에 불타 친척을 공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금전 이득은 모르고 노동의 대가만을 알았던 사람입니까? 몰수 재산매입자 가운데 가장 무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법정과 재판을 모르고, 재판석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도시 로마마저 두려워했던 사람입니까? 배심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질문인 바, 적이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마그누스를 고발한 후 계속해서 키케로는 카피토를 추궁한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촉구하면서 카피토와 관련한 신빙성 있는 논변을 펼친다. 카피토가 에루키우스를 불러 작성하게 한 문서를 꺼내 놓으라고 한다. 의뢰인에게 카피토가 위협해서 작성하게 한 문서를 말이다. 이어서 키케로는 살해 직후의 일을 살펴보자며 고발자들이 낯선 사람의 농장을 탐내게 된 경위를 시작으로 고발자들과 그 배후 인물들의 관계를 조목조목 따져나간다. 앞서 마그누스를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적을 짚어 나가며 왜 그들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지 청중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고발자에 대한 반박과 진짜 범인을 역으로 고발하는 개연성 있는 발언을 정리한다.

“여러분은 변론 초반에 제가 이번 사건을 고발과 무모함으로 나는 걸 기억할 것입니다. 고발은 전적으로 에루키우스가 맡았고, 무모함은 두 로스키우스(필자 주: 죽은 사람의 친척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다.)가 맡았습니다. 발견되는 모든 악행, 범죄, 살인은 두 로스키우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크뤼소고누스의 엄청난 영향력과 권력을 고발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바, 권한을 부여받은 여러분이 이것을 무력하게 만들고 처벌할 것을 주장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언급하지 않고서는 지나칠 수 없었던 것들은 가볍게 다루었지만, 의심스러운 것들, 즉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면 더 많이 논의해야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판단과 추론에 맡기고자 합니다.”

키케로는 청중의 집중을 계속 유도하면서 최후의 공격표적을 크뤼소고누스로 옮긴다. 당대 최고의 실세, 술라 진영에서 호가호위하는 권력자를 상대로 키케로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그가 범행 전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전반과 그와의 관계를 낱알이 들추어낸다. 우선 그는 섹스투스 로스키우스 재산의 매입자가 크뤼소고누스라는 사실을 공표하며 어떤 과정에서 재산이 팔릴 수 있었는가를 묻는다. 그 과정에서 합법적인 요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으며 거짓과 날조는 물론 시민들의 고변기회도 중간에서 차단시킨 것을 비롯하여 서슴지 않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저는 섹스투스 로스키우스와 무관하게, 저와 관련해서 크뤼소고누스에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왜 더없이 훌륭한 시민의 재산이 경매 처분되었습니까? 둘째, 왜 재산 몰수자 명단에 오르지도 않았고 적에 가담했다 죽은 것도 아닌 사람의 재산이 경매 처분되었습니까? 법은 오직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적에 가담했다 죽은 사람들에게만 적용

합니다. 셋째, 왜 법정 기한이 한참 지난 후에 경매 처분되었습니까? 넷째, 왜 헐값에 경매 처분되었습니까? 사악하고 흉악한 해방노예가 흔히 그렇게 하듯, 크뤼소고누스가 두 호인(斗護人)에게 모두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루키우스 술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가 중요한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노려, 많은 그의 측근들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법정 변론이라면 당연히 논리의 칼날을 세우고 감정은 가급적 배제해야 할 것 같으나 키케로의 말을 빌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 청중의 감정을 자극해야 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논증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사용해야 한다. 이 변론에서도 키케로는 부드러운 감정에서 격한 감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사용하고 있다. 청중으로 하여금 때론 피고인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때론 고발자에게 분노를 야기하게 한다. 앞서 살펴본 크뤼소고누스를 향한 공격에서도 청중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요소를 아예 별도로 배치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몰아붙인 후, 이번엔 그의 사치스런 생활을 들춰낸다. 팔라티움 언덕의 저택에서 시작하여 별장, 농장, 고급가구, 장식, 의복, 많은 노예, 야간연회 등등 다양한 항목을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이 혼란한 시절에 행한 약탈을 통해 여러 명문가로부터 빼앗아 쌓아둔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를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해 청중의 분노를 사고 있는 셈이다. 반면 로스키우스는 단지 혐의를 벗고 고발에서 벗어나 시골로 돌아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소원일 뿐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때론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고, 때론 의뢰인의 목소리로 청중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의뢰인에 대한 동정심은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

“그의 소망은 혐의를 벗고 흉악한 고발에서 풀려나 여러분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부당한 의심에서 벗어난다면, 모든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부친의 엄청난 재산을 한 푼도 갖지 않고, 크뤼소고누스여, 당신을 전혀 속이지 않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세고 무게를 달아 더없이 정직하게 넘겨주고, 입은 옷과 반지마저 당신에게 건네고, 모든 소유물 중에서 유일하게 알몸만을 취하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가난하게라도 살게 해달라고 무고한 그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은 저의 농장을 소유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 받으며 삽니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은 평온하며 평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은 당신에게 열려 있지만 저에게 닫혀 있습니다. 이 또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저의 많은 노예를 부리지만, 저에게는 단 한 명의 노예도 없습니다.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무엇을 원합니까? 왜 저를 못살게 굶니까? 왜 저를 공격합니까? 어떤 점에서 제가 당신의 희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에서 제가 당신의 이익을 방해합니까? 왜 제가 당신을 가로막겠습니까?” 라고.”

고발자에게 혐의를 두고 그의 측근들을 역 고발하는 전략으로 반박하고 나서 변론은 마무리로 향한다. 마무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무고한 사람을 구하고 파렴치한 인물을 심판하여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이다. 그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악을 근절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온정으로 돕고 인간성을 지켜나가자고 설파하면서 변론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국가를 몹시 괴롭히는 악들을 더없이 열심히 치유하는 일은,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은 여러분 같은 현명한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과거 적들에게까지 누구보다 온정적이었던 로마 인민이, 오늘날 자국민에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없을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런 잔인함을 몰아내십시오. 이 나라에서 이제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런 잔인함은 수많은 시민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나아가 더없이 온정적이던 사람들조차 많은 불운에 단련되어 더는 동정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악한 것입니다. 매 순간 잔인한 행위를 보고 듣는다면, 본성상 아무리 온순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키케로의 변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곱씹어 보아야 할 내용이다. 권력에 편승해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공동체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집단의 이기를 좇아 명분과 세력 확장에만 골몰하는 인사들. 용기란 지도자의 덕목이자 성숙한 시민이 지녀야 할 교양이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냐고 물러서는 사람은 비겁한 인간이라고 키케로는 우리에게 강변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자연에, 인간에 신세를 진 덕분이란단다. 우리는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도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인문정신, 곧 인문학을 알아야 한다. 이 인문학의 핵심이 바로 수사학이다. 수사학은 인간교육의 기본원리다. 스물여섯의 젊은 키케로가 2000여 년 전 로마의 한 법정에서 인간 공동체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연대해야 한다는 메

시지를 던지고 있다. “남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고, 온정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올곧게 가져야 하며, 설득과 중재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필자주  본문에 수록된 연설문들은 아래의 참고문헌에서 발췌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Cicero, G. Krüger(bers. u. hrsg.), 2014, Pro Sex. Roscio Amerino oratio. Rede für Sextus Roscius aus Ameria (Reclam)

키케로, 2015, 『설득의 정치』, 김남우 외 공역, 민음사

키케로, 2006, 『수사학.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안재원 편역, 길